

##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 방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옥윤영\* · 김경요\*

### Abstract

### Study on history of prescription through comparison Sasang-Yihak-Chobonguen with Dongyi-Soose-Bowon

Ok Yun-young · Kim Kyung-y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tch the expansion of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prescription of Sasang-Yihak-Chobonguen with prescription of Dongyi-Soose-Bowon

#### Method

I studied the archive of prescription and medicines concerned in the Sasang-Yihak-Chobonguen with Dongyi-Soose-Bowon

#### Result and conclusion

1. The base of theory on prescription of Sasang-Yihak-Chobonguen is based on Naesang -oigam theory but the base of theory on prescription of Dongyi-Soose-Bowon is based on Pyoribyeong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dicines are confused in prescription of Sasang-Yihak-Chobonguen but medicines are not confused in prescription.

Key words : Sasang-Yihak-Chobonguen Dongyi-Soose-Bowon

## 1. 緒 論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 나오는 「新定方」은 李濟馬의 독창적인 처방도 있지만 기존의 방제로부터 발전시켜 나온 처방들도 있다. 또한 이 두 유형의 처방들 모두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실천을 통해 연구하고 검증하며 점차 완전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초기의 李濟馬의 처방과 후기의 李濟馬의 처방을 비교해 본다면 처방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학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갔는지도 파악할 수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교신저자: 옥윤영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8-1 만수당한의원 전화) 062-524-1881 E-mail) mansu2@channeli.net

있다고 생각한다. 1985년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의 부록에 실린 『四象醫學草本卷』을 보면 글의 내용과 처방의 내용이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은 이제마가 사망한 후 그의 門徒들에 의해 1901년에 新舊本을 합하여 栗洞契에서 출판한 책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초기의 처방은 『四象醫學草本卷』의 처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후기의 처방은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처방을 기준으로 삼았다.

## II. 研究目的 및 方法

본 논고에서는 초기의 이제마의 처방과 후기의 이제마의 처방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갔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상체질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갔는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1.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四象醫學草本卷』, 『東武遺稿』 등에서 처방과 약물에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였다. 후세방에서 발전되어 온 처방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적하여 본래의 처방과 그 내용과 의의를 비교하였다.

2. 초기의 이제마의 처방은 『四象醫學草本卷』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고 후기의 이제마의 처방은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처방 중 同名의 처방을 위주로 비교하였다. 이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 同名의 처방이 있는 경우 『四象醫學草本卷』의 처방이 「新定方」의 처방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가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4. 처방의 비교는 약물의 가감을 위주로 비교하였다.

## III. 本論 및 考察

### 1. 少陰人 처방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1) 十全大補湯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해장서	경험방 <sup>a)</sup>	초고 <sup>b)</sup>	신정방
인삼	1	1	1	1
백출	1	1	1	1
백작약	1	1	1	1
자감초	1	1	1	1
황기	1	1	1	1
육계	1	1		
관계				1
계피			1	
당귀	1	1	1	1
천궁	1	1	1	1
백복령	1			
속지황	1			
사인		1	1	
진피		1		1
백하오				1
생강	3	3	3	3
대조	2	2	2	2

<단위 錢, 생강 단위는 片, 대조 단위는 枚>

a) 이하 소음인 처방 비교표의 「경험방」은 『東醫壽世保元』,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을 말한다.

b) 이하 모든 처방 비교표의 「초고」는 『四象醫學草本卷』을 말한다.

### 2) 처방 비교

『海藏書』의 十全大補湯은 虛勞를 다스린다 하였고 『四象醫學草本卷』<sup>1)</sup>(이하 『草藁』라稱한다)의 十全大補湯은 少陰人 虛勞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海藏書』의 처방에는 少陽人 약인 白茯苓과 熟地黃이 들어 있어 李濟馬는 이를 빼고 두 가지 약재를 더 첨가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sup>2)</sup> 중의 十全大補湯을 보면 白茯苓과 熟地黃을 빼고 砂仁과 陳皮를 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草藁』에서는 白茯苓과 熟地黃 대신 白何首烏와 砂仁이 들어가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서는 白何首烏와 陳皮가 들어가 있다. 『草藁』에는 官桂 대신 桂皮를 사용하였다. 이들 처방을 보면 용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砂仁 陳皮 白何首烏의 차이가 있다.

『草藁』<sup>1)</sup>에서는 「四君子湯에 四物湯을 합쳐서 八珍湯이라고 부르고 桂皮 黃芪를 추가하여 十全大補湯이라고 부른다. 모두 少陰人의 虛勞病을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新定方」<sup>2)</sup>에서는 「八物君子湯에 人蔘과 黃芪를 각각 1돈씩 쓰고 白何首烏와 官桂를 각각 1돈씩 가하면 十全大補湯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草藁』와 「新定方」의 十全大補湯의 차이는 『草藁』의 八珍湯과 「新定方」의 八物君子湯의 차이로 볼 수 있다. 「新定方」의 八物君子湯은 『草藁』의 八珍湯에서 白何首烏와 砂仁이 빠지고 黃芪와 陳皮가 들어가며 人蔘을 2돈으로 올렸다. 이는 八珍湯이 四君子湯과 四物湯을 동등하게 배합한 것이라면 八物君子湯은 四君子湯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배합했다고 볼 수 있다. 八珍湯은 少陰人의 虛勞病을 다스리는 처방이며 八物君子湯은 少陰人 表病 腎陽困熱 鬱狂證에 사용된 대표적인 처방이다. 즉 八珍湯은 四物과 四君자를 동등하게 배합하여 補血과 補氣를 동시에 하는 虛勞의 처방인 반면 八物君子湯은 四君자를 강력하게 만들어 升陽益氣로써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을 다스리는 처방이다. 八物君子湯이 四物과 四君자의 합이 아닌 四君子湯을 위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表裏病의 이론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新定方」의 十全大補湯은 치험례가 없기는 하지만 八物君子湯에서 나온 처방이라는 사실과 구성약물로 볼 때 升陽溫補하는 少陰人 表病藥임을 알 수 있다. 이하 약재들의 비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新定方」에서는 砂仁이 들어가는 四物湯의 개념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는 砂仁과 陳皮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砂仁은 『草藁』<sup>1)</sup>의 錢氏異功散 조문에서 滯한 증상이 경했을 때 가한다고 하여 기존의학의 調中行氣 효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四物湯 조문에서는 ‘四物湯은 脾臟의 元氣가 손상된 것을 다스리며’ 라고 하여 내상을 다스리는 약임을 말하고 있다. 陳皮는 藿香正氣散, 香蘇散에 들어가 外感을 다스리는데 쓰이며 四物湯 가미에서 安胎, 補中益氣湯에서 理氣健脾, 導痰湯에서 化痰작용을 한다. 砂仁과 陳皮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砂仁은 주로 內傷에 사용되나 陳皮는 內傷은 물론 外感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草藁』에서는 四物湯의 관점에서 砂仁이 사용되던 것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이론이 성립되면서 外感을 치료하는 八物君子湯의 관점에서 陳皮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十全大補湯을 보면 砂仁과 陳皮가 들어가고 白何首烏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草藁』의 四君子湯에도 들어 있는 白何首烏

가 빠진 점으로 보아 『草藁』의 十全大補湯보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十全大補湯이 더 이전에 나온 처방임을 알 수 있다.

白何首烏는 『草藁』와 「新定方」의 十全大補湯에는 모두 들어 있고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十全大補湯에는 빠져 있다. 『草藁』에서의 白何首烏는 四君자와 四物의 합방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新定方」의 白何首烏는 四君자를 강화시킨 八物君子湯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新定方」<sup>3)</sup> 白何首烏理中湯 조문에 나온 白何首烏의 설명을 보면 ‘人蔘이 있으면 人蔘을 쓰고 人蔘이 없으면 白何首烏를 쓴다. 白何首烏는 人蔘과 성미가 서로 가까우나 맑고 시원한 힘은 人蔘보다 못하고 따뜻이 보호하는 힘은 人蔘보다 더하여 다르기도 하고 같은 측면도 없지 않다. 위험한 증에 人蔘 2돈 이상을 써야 할 때에 전혀 白何首烏를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白何首烏는 따뜻이 보호하는 힘은 人蔘보다 더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新定方」의 十全大補湯에 何首烏를 人蔘과 같이 사용하였고 官桂로써 溫補를 돕도록 한 점은 溫補升陽하는 효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草藁』에서는 十全大補湯만이 桂皮를 사용하고 있으며 『草藁』의 다른 처방들에서는 桂皮나 官桂를 사용하지 않았다. 『草藁』나 『東武遺稿』에서는 官桂와 桂皮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서는 藿香正氣散과 鷄蔘膏에서만 桂皮를 사용하고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升陽益氣湯 十全大補湯 人蔘吳茱萸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에서는 官桂를 사용하였다. 이는 『東醫壽世保元』으로 가면서 桂皮와 官桂의 명확한 구분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十全大補湯에서 官桂는 溫補升陽하는 효능을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溫補를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해 桂皮를 사용하지 않고 관에 납품하는 肉桂인 官桂를 사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草藁』의 十全大補湯은 表裏病이 완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八珍湯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처방으로 少陰人 虛勞를 다스리며,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의 十全大補湯은 表裏病의

이론이 성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처방으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八物君子湯에서 변형된 表熱病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補中益氣湯의 변천과정

1) 처방구성

	동원서	경험방	초고	신정방
인삼	1	1	1	3
황기	1.5	3	3(蜜炙)	3
백출	1	1	0.7	1
자감초	1	1	1	1
곽향		0.3		0.3-0.5
소엽		0.3		0.3-0.5
당귀	0.7	0.7	0.7	1
진피	0.7	0.7	0.5	1
승마	0.3			
시호	0.3			
생강	3	3	3	3
대조	2	2	2	2

<단위 錢, 생강 단위는 片, 대조 단위는 枚>

2) 처방비교

『東垣書』의 補中益氣湯에는 少陽人 약재인 柴胡와 太陰人 약재인 升麻가 들어 있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補中益氣湯에서는 黃芪를 증량하고 柴胡 升麻 대신 藿香 紫蘇葉을 넣었으며 『草藪』에서는 黃芪를 蜜炙하여 증량하고 柴胡와 升麻를 빼기만 했고 『新定方』에서는 黃芪와 人蔘을 증량하고 柴胡와 升麻 대신 藿香 蘇葉을 넣었다.

『草藪』<sup>1)</sup>에서는 黃芪의 용량을 3돈으로 올리고 黃芪를 蜜炙하여 사용한다고 했다. 『草藪』<sup>1)</sup>에 보면 ‘當歸 白芍藥은 微炒하고 白朮은 半炒하고 乾薑 附子 南星은 炮하고 黃芪는 灸한다. 대개 비장의 기운은 전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줄어서 흩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무릇 약의 성질이 지나치게 제멋대로 흩어지는 것은 혹 炒하고 혹 炙하며 혹은 炮하여 전부 한 곳에 모이게 하여 脾臟의 元氣를 보호하고 조화롭게 한다’ 라고 하여 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新定方』에서는 人蔘 역시 黃芪처럼 3돈으로 용량을 올렸으며 甘草 白朮 當歸 陳皮의 용량도 『草藪』보다 많은 1돈으로 올리고 藿香 蘇葉을 추가하였다.

『東垣書』와 『草藪』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黃芪의

증량이며 『草藪』와 『新定方』의 가장 큰 차이는 人蔘의 증량이다. 『草藪』<sup>1)</sup>에서 補中益氣湯은 內傷에서 오는 頭痛 眩暈 增寒壯熱 不知飲食 四肢無力을 다스린다고 하였고 黃芪를 蜜炙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草藪』의 補中益氣湯은 內傷을 다스리는 처방임을 알 수 있으며 黃芪를 蜜炙한 이유에 대해 병의 증상과 약물편<sup>1)</sup>에서 ‘전부 한 곳에 모이게 하면서 脾臟의 元氣를 보호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黃芪를 蜜炙하여 손상된 脾臟의 元氣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sup>2)</sup>에서는 發熱하며 惡寒이 나고 땀이 있는 亡陽의 초기 증상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한다고 하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에 사용하였다. 즉 『草藪』의 처방은 內傷에, 新定方의 처방은 表裏病 중 表熱病에 사용되었다. 黃芪 역시 『草藪』에서는 補中益氣시키는 약물로 사용하였고 『新定方』에서는 補氣升陽시키는 약물로 사용하였다.

『新定方』에서의 人蔘의 증량 이유도 補脾和脾하고 陽氣를 補하며 升陽의 주약이 되고 保命之主를 구성하는 약물로써 적극적인 升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新定方』 補中益氣湯의 黃芪와 人蔘은 升陽을 위한 약물임을 알 수 있다.

藿香과 蘇葉을 보면 藿香은<sup>2)</sup> 定氣定魂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의학<sup>4)</sup>에서는 和中止嘔하고 化濕한다고 하였으며 『湯液本草』에서는 ‘토하는 것을 멎게 하고 風寒을 헤치는데 제일 좋은 약이다’라고 하여 內傷과 外感에 동시에 사용되는 약임을 말하고 있다. 蘇葉은 『東武遺稿』<sup>6)</sup>에서 解肌之表邪라 하였으니 發散 및 解肌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존의학<sup>4)</sup>에서는 發汗解表 行氣寬中 解魚蟹毒 등의 효능을 제시하여 脾胃의 虛寒症과 體表의 寒邪鬱滯를 주치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藿香과 蘇葉이 虛寒한 少陰人의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風寒의 外邪를 헤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草藪』에서 빠져 있는 藿香과 蘇葉이 『新定方』에 추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藿香과 蘇葉이 脾胃의 虛寒症과 表邪를 동시에 다스리는 효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위에서 말한 『草藪』의 補中益氣湯이 內傷에 사용된 반면 『新定方』의 補中益氣湯은 表裏病의 개념이 완성된 이후에 少陰人의 腎受熱表熱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補中益氣湯을 보면 人蔘의 증량은 없이 黃芪만 3돈으로 올리고 藿香 蘇葉을 넣었다. 이는 新定方의 처방의의와 대동소이하며 『草藁』의 의미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草藁』의 補中益氣湯은 黃芪를 蜜炙하여 사용한 점과 藿香 蘇葉을 아직 추가하지 않고서 內傷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점으로 보아 『草藁』의 저술 당시에는 表裏病의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新定方」補中益氣湯은 表裏病의 개념이 성립된 이후에 완성된 처방으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亡陽 初證에 사용되었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補中益氣湯의 처방의의가 「新定方」補中益氣湯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補中益氣湯이 『草藁』의 補中益氣湯보다 시대적으로 뒤에 사용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 (3) 藿香正氣散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의감	경험방	초고	신정방
곽향	1.5	1.5	1	1.5
소엽	1	1	1	1
창출			1	0.5
백출	0.5	0.5		0.5
반하	0.5	0.5	1	0.5
진피	0.5	0.5	1	0.5
청피				0.5
후박	0.5	0.5	1	
대북피	0.5	0.5	1	0.5
계피		0.5		0.5
건강		0.5		0.5
익지인		0.5		0.5
감초	0.5	0.5	1	0.5
길경	0.5			
백지	0.5			
백복령	0.5			
생강	3	3	3	3
대조	2	2	2	2

<단위 錢, 생강 단위는 片 대조 단위는 枚>

#### 2) 처방비교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藿香正氣散은 『醫鑑』의 藿香正氣散에서 太陰人 약재인 桔梗 白芷와 少陽人 약재인 茯苓을 빼고 桂皮와 乾薑, 益智仁을 넣었다. 『草藁』에서는 『醫鑑』의 처방에서 桔梗 白芷 茯苓을 빼고 白朮 대신 蒼朮을 사용하였으며 용량을 모두 1돈으로 하였다. 「新定方」藿香正氣散은 『醫鑑』의 처방에서 桔梗 白芷 白茯苓 厚朴을 빼고 蒼朮 靑皮 桂皮 乾薑 益智仁을 추가하였다. 이 처방은 『草藁』의 처방에서 厚朴이 빠지고 白朮 靑皮 桂皮 乾薑 益智仁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고 또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藿香正氣散과 「新定方」藿香正氣散의 용량이 모두 『醫鑑』의 藿香正氣散의 용량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草藁』의 藿香正氣散이 「新定方」의 藿香正氣散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醫鑑』의 처방에서 직접적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草藁』의 처방과 「新定方」藿香正氣散을 비교해 보면 이 둘의 차이점은 蒼朮 白朮의 혼용, 靑皮 桂皮 乾薑 益智仁의 추가 그리고 厚朴이 빠진다는 점이다.

蒼朮은<sup>4)</sup> 燥濕健脾 去風濕의 효능이 있어서 『東醫寶鑑』<sup>5)</sup>에서는 風寒濕으로 생긴 痺症과 癩亂을 낫게 한다 하였고 白朮은 『東武遺稿』<sup>6)</sup>에서 健脾直脾라 하였고 기존 의학<sup>4)</sup>에서는 補脾益氣 燥濕利水라 하여 비장의 기운을 튼튼히 하는 게 白朮의 주작용임을 말하였다. 즉 蒼朮은 濕이나 風濕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고 비장의 기운을 튼튼히 하는 것은 白朮이 뛰어나다. 『草藁』<sup>1)</sup>의 藿香正氣散에서 白朮 대신 蒼朮을 사용한 것은 升陽을 배제한 蒼朮의 去風濕 효능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新定方」에서는 升陽을 목적으로 白朮을 그대로 두었다고 보여진다. 「新定方」의 藿香正氣散이 胃受寒裏寒病의 太陰證 下利清穀에 쓰일 때에는 溫胃而降陰하는 효능이 있다. 이 효능에서 白朮이 큰 의미를 한다고 본다. 白朮은 『東武遺稿』<sup>6)</sup>에서 健脾直脾의 약성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升陽의 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니 이러한 약성 때문에 少陰人 表病證 鬱狂證 中證 이상과 太陰證 少陰證에 사용된다. 藿香正氣散이 少陰人 表病 鬱狂證과 少陰人 裏病 太陰證 下利清穀에 모두 사용되는 이유 중 한가지가 바로 白朮

과 蒼朮을 동시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新定方」에서는 『草藁』에 들어 있던 厚朴이 빠지는데 「新定方」의 처방 중에는 厚朴이 들어가는 처방이 없으며 단지 赤白何烏寬中湯 조문의 가미법<sup>3)</sup>에만 나와 있다. ‘赤白何烏寬中湯은 사지가 권태로우며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며 음경이 일어나지 않으며 장차 부종이 생길 징조가 있는 자에게 쓴다’고 하였으며 ‘이 처방에 厚朴 枳實 木香 大腹皮 각 5푼을 가미하면 또한 氣脈을 통하는 효력이 있으니 비록 부종이 생긴 환자라 해도 마음과 생각을 안정하고 1일 2번씩 100일만 먹으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학<sup>4)</sup>의 化濕導滯 行氣溫中의 효능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厚朴은 이미 부종이 생긴 환자에게 가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靑皮 乾薑 益智仁이 추가된 것은 赤白何烏寬中湯에 陳皮 靑皮 乾薑 益智仁이 들어간 의미와 같은 것으로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sup>5)</sup>에서 ‘乾薑 良薑 陳皮 靑皮 香附子 益智仁이 능히 少陰人의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용약법 역시 『草藁』의 저술 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당시에 개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草藁』의 藿香正氣散이 外感통치 위주로 구성된 반면 「新定方」의 藿香正氣散은 白朮과 蒼朮이 동시에 쓰이고 靑皮 乾薑 益智仁 등이 추가되어 升陽益氣와 溫胃而陰降하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鬱狂 初證과 胃受寒裏寒病 太陰證 下利清穀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었다.

#### (4) 蘇合香元の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국방서	초고	경험방
백출	2	1	2
목향	2	1	2
침향	2	1	2
사향	2		
정향	2		2
안식향	2	1	2
백단향	2		2

	국방서	초고	경험방
가자피	2	1	2
향부자	2		2
필발	2	1	2
서각	2		
주사	2		
백부자		1	
소합유	1	1	1
유향	1		
용뇌	1		
곽향			+
회향			+
계피			+
오령지			+
현호색			+
		各等分	

<단위 兩>

초고의 용량은 各等分.

경험방의 곽향 회향 계피 오령지 현호색은 용량 표시가 없음.

##### 2) 처방비교

『草藁』의 蘇合香元은 『局方書』의 蘇合香元에서 麝香 丁香 白檀香 香附子 犀角 朱砂 乳香 龍腦가 빠지고 白附子が 들어간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에 나오는 蘇合香元은 『草藁』의 蘇合香元에서 丁香 白檀香 香附子 藿香 茴香 桂皮 五靈脂 玄胡索이 추가되고 白附子が 빠진다. 이 중 藿香 茴香 桂皮 五靈脂 玄胡索은 새롭게 추가된 약재지만 丁香 白檀香 香附子는 『局方書』에 있던 약재를 『草藁』에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추가시켰다. 『草藁』에 나오는 14가지 少陰人 처방 중 香蘇散에는 香附子が 들어가 있으나 蘇合香元에서는 香附子が 빠졌다. 香附子는 대표적인 解鬱약으로 一切의 氣病을 다스린다는 蘇合香元에서 香附子が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香附子が 빠지고 白附子が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白附子는 기존의학<sup>4)</sup>에서 祛風痰하고 逐寒濕하는 작용이 있어 주로 구안와사나 風寒濕痰에 사용되는 약재이다. 이 白附子が 氣病을 다스리는 蘇合香元에 가미가 된 것을 어물리지 않다고 본다. 아마도 白附子の 白자는 香자의 誤記인 듯 싶다. 그리고 丁香과 白檀香은 草藁의 14가지 少陰人 처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丁香과 白檀香은 체질별 약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草藁』<sup>1)</sup>에서는 모든 氣病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나 치험례가 없고 『東醫壽世保元』 역시 치험례가 없으니 자세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에서는 氣를 다스리는 약 이외에 瘀血을 다스리는 五靈脂나 玄胡索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新定方」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용약법이다. 이것도 또한 「新定方」의 처방이 瘀血 등의 雜病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오직 表裏病 위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蘇合香元은 「新定方」의 설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蘇合香元은 『草藁』와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처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처방들에 대한 치험례가 없고 「新定方」으로 발전하지도 않았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蘇合香元과 『草藁』의 蘇合香元이 시대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에는 理氣약물이나 祛瘀약물의 활용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약물의 활용도 表裏病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5) 香蘇散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특효방	경험방	초고
양부자	3	3	1
소엽	2.5	2.5	1
천궁			1
창출	1	1	1
진피	1.5	1.5	1
감초	1	1	1
생강	3	3	3
대조			2
총백	2	2	

<단위 錢, 생강 단위는 片 대조 단위는 枚총백 단위는 莖>

#### 2) 처방비교

『草藁』의 처방은 『得效方』의 처방에 川芎이 추가되었으며 용량은 모두 1돈으로 되어 있다. 『得效方』

의 蔥白은 『草藁』에 와서 大棗로 바뀌었다.

『草藁』의 처방 중에서 香蘇散 이외에 川芎이 들어가는 처방은 四物湯과 川當湯으로 四物湯은 ‘脾臟의 元氣損傷을 다스린다’고 하였고 川當湯은 ‘임산부의 출산전후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기존의학<sup>4)</sup>에서는 川芎이 行氣와 活血의 효능으로 風寒과 血虛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香蘇散에서는 風寒을 다스리는 효능 위주로 작용한 것이고 四物湯과 川當湯은 血虛를 다스리는 효능 위주로 작용한 것이다.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香蘇散은 『得效方』의 香蘇散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草藁』의 처방과 「宋元明 3대 의가저술 중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약 6방」의 처방은 큰 차이가 없다. 효능 역시 『草藁』<sup>1)</sup>에서는 四時運氣의 질환에 사용한다 하였고 『東醫壽世保元』<sup>2)</sup>에서는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鬱狂 初證에 사용한다 하였으니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新定方」의 芎歸香蘇散을 보면 『草藁』의 香蘇散에서 香附子를 2돈으로 올리고 當歸 1돈을 추가하고 여기에 蔥白 5莖을 넣었다. 芎歸香蘇散의 주치증 또한 香蘇散과 마찬가지로 腎受熱表熱病 發熱惡寒 無汗에 사용하므로 『草藁』의 香蘇散이 「新定方」에서는 芎歸香蘇散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蔥白은 『草藁』의 香蘇散에서는 빠졌으나 「新定方」의 芎歸香蘇散에서는 『得效方』에서처럼 다시 추가되었으니 이것은 蔥白의 解肌之表邪하는 효능이 香蘇散의 의의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得效方』의 香蘇散은 『草藁』의 香蘇散에서 川芎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風寒을 다스리는 효능을 노린 것이다. 또 『得效方』에 있던 蔥白이 빠지고 大棗가 추가되었는데 蔥白이 빠진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新定方」의 芎歸香蘇散에서는 蔥白이 다시 추가되었다. 『草藁』의 香蘇散과 「新定方」의 芎歸香蘇散은 當歸와 蔥白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적응증 또한 같으므로 香蘇散이 芎歸香蘇散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少陽人 처방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1) 荊防敗毒散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의감	경험방 <sup>1)</sup>	초고	신정방
강활	1	1	2	1
독활	1	1	2	1
시호	1	1	2	1
전호	1	1	2	1
형개	1	1	0.5	1
방풍	1	1	2	1
적복령	1	1	2	1
생지황			2	1
지골피				1
차전자			2	1
목통			2	
감초	1		0.3	
박하	소량	소량		
지각	1			
칠경	1			
천궁	1			
인삼	1			

<단위 錢>

a) 이하 소양인 처방 비교표의 경험방은 『東醫壽世保元』 「元明2 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을 말한다.

## 2) 처방 비교

『草藁』의 처방을 보면 『醫鑑』의 처방에서 少陰人 약재인 枳殼 川芎 人參과 太陰人 약재인 桔梗을 빼고 車前子 木通 生地黃을 가미했다. 특이한 점은 少陰人 약재인 甘草를 빼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薄荷는 少陽人 약재인데도 빠져 있다. 「新定方」의 처방과 『草藁』의 처방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은 木通이 地骨皮로 바뀐 것이고 少陰人 약재인 甘草는 빠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재의 용량을 보면 『草藁』의 경우 荊芥가 5푼인 반면 타 약재는 대부분이 2푼인데 「新定方」에서는 荊芥가 다른 약재들과 동일하게 1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 또한 敗毒散에서 荊防敗毒散으로 바뀌었다. 이는 少陽人 약재 중 에서 荊芥와 防風의 중요성이 『東醫壽世保元』으로 갈수록 더 강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草藁』를 보면 甘草가 빠지지 않았다. 『草藁』<sup>1)</sup>에 보면 두 개의 白虎湯이 나오는데 첫 번째 白虎湯에 粳米가 들어가 있다. 또 益元散 조문<sup>2)</sup>을 보면 滑石末 甘草末 朱砂末로 구성이 되어 있어 甘草가 역시 빠지지 않았다. 병의 증상과 약물 제6통<sup>3)</sup>을 보면 ‘補中益氣湯의 升麻 柴胡, 大小承氣湯의 大

黃 芒硝, 白沸湯의 粳米, 益元散의 生甘草는 법제하여 사용하면 변통의 마땅함을 얻지만 古方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草藁』의 저술 당시에는 체질별 약재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약재를 반드시 한 체질에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草藁』의 敗毒散은 木通이 들어가는데 「新定方」의 荊防敗毒散은 木通이 빠진다. 木通은 淸熱로써 降陰을 시키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 보면 荊防導赤散, 導赤降氣湯 등 荊防敗毒散을 제외한 모든 少陽人 表病의 傷風證에 木通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草藁』의 敗毒散이 『東醫壽世保元』으로 가면서 보다 세분화되면서 발전되어 간 것이다. 荊防敗毒散은 단순한 解鬱만으로도 降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도록 木通을 빼고 地骨皮를 가하여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草藁』의 저술 당시에는 1약물 1체질의 원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草藁』의 敗毒散이 少陽人 外感병에 다양하게 쓰인 반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降陰의 방법을 解鬱과 淸熱로 구분하여 淸熱로써 降陰을 시킬 경우에는 木通이 들어간 처방을 사용하고 단순한 解鬱만으로도 降陰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하였다.

## (2) 陽毒白虎湯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초고	신정방
석고	4	5-10
생지황	4	4
지모		2
형개	1	1
방풍		1
우방자	1	1
강활	1	
독활	0.5	
현삼	0.5	
시호	0.5	
산치자	0.5	
인동등	0.5	
박하	0.5	

<단위 錢>

## 2) 처방비교

『新定方』과 『草藁』를 비교해 보면 『新定方』에는石膏의 양이 더 많고 知母 2돈 防風 1돈이 더 들어있고 羌活 獨活 玄蔘 柴胡 山梔子 忍冬藤 薄荷가 빠져 있다.

『草藁』의 陽毒白虎湯에는 처방 설명이 없으므로 『新定方』<sup>3)</sup>의 陽毒白虎湯의 陽毒發斑에 便秘를 다스린다는 주치증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교를 해 보았다. 우선 羌活 獨活 玄蔘 柴胡 山梔子 忍冬藤 薄荷의 효능을 보면 熱毒이나 火를 發散시키거나 가라앉히는 약들이다. 이 약들이 『草藁』에서는 들어갔으나 『新定方』에서는 빠져 버린 이유는 陽毒으로 斑疹이 일어나는 것은 심한 裏熱로 인한 것이므로 裏熱을 가라앉히는 것만이 근본적 치유가 되지 熱毒을 發散시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草藁』<sup>1)</sup>의 처방 중 防風通聖散은 發熱 陽毒證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防風通聖散은 淸熱을 시킴과 동시에 熱毒을 發散을 통해 풀어 주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草藁』의 陽毒白虎湯은 石膏와 生地黃을 4돈씩 사용하여 裏熱을 막히면서 동시에 熱毒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防風通聖散이 熱毒을 발산시키는 작용이 주가 된다면 陽毒白虎湯은 裏熱을 막히는 작용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여 『新定方』에 가서는 淸裏熱하는 약물의 용량을 보다 늘리고 熱毒을 발산하는 약은 더 축소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草藁』에 나오는 白虎湯 계열의 처방들이다. 『草藁』<sup>1)</sup>에 두 가지의 白虎湯, 渡海白虎湯, 豬苓白虎湯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白虎湯에 知母가 들어가 있으나 陽毒白虎湯에만 知母가 빠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陽毒白虎湯에는 표증약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草藁』의 陽毒白虎湯에서는 裏熱을 막힘과 동시에 표증약으로써 열을 발산시키고 또 玄蔘 梔子 忍冬藤으로 열을 막히면서 解毒을 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新定方』의 陽毒白虎湯에서는 脾陰不足에서 胃熱까지 이른 상태에 변비가 걸친 것을 주증으로 하여 石膏 生地黃 知母로 裏熱을 막히면서 대변을 통하게 하고 發散하는 약은 荊芥 防風 牛蒡子 만을 가하였다. 즉 少陽人の 陽毒發斑便秘는

裏熱病 중에서도 胃熱이 심한 상태에서 발하는 것으로 보고 裏熱을 막히는데 중점을 두고 발산하는 荊芥 防風과 후세방<sup>4)</sup>적으로 解毒透疹하면서 疏散風熱하는 작용이 있는 牛蒡子만을 가했다. 이처럼 裏熱을 다스리는 것이 陽毒發斑을 치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草藁』의 陽毒白虎湯에서 빠져있던 知母를 추가하고 石膏를 증량하였다.

결론적으로 『新定方』의 陽毒白虎湯은 구성약물을 가급적으로 단순화시키면서 裏熱을 강력히 막히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草藁』의 저술 당시에는 陽毒發斑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표리를 동등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한 반면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당시에는 脾陰不足에 胃熱까지 이른 상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그러한 근본을 다스리기 위해 陽毒白虎湯의 구성 약물이 변화된 것이라고 본다.

## (3) 甘遂天一丸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초고	신정방
감수	1	1
경분	0.1	0.1
주사衣		+
주사	0.1	

<단위 錢>

### 2) 처방비교

두 처방을 비교해 보면 처방의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新定方』<sup>3)</sup>에서는 '3, 4, 5쪽을 만들어 입에 넣고 이어 정화수를 마셔 녹여 넘기고 6~8시간 내에 설사하지 않거든 재차 2개를 써서 설사를 3번하면 적당한 것이고 6번하면 아주 쾌한 것이 된다. 미리 미음을 쏘어 두었다가 설사를 2~3번하거든 이어 미음을 먹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력이 쇠약하여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고 『草藁』<sup>1)</sup>에서는 '먼저 한 알을 먹고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다시 두 알을 먹는다. 설사를 3~4차례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고 1~2 차례는 충분하지 못하고 5~6 차례는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라고만 하였으니 『草藁』의 당시에는 설사로 기

력이 쇠진한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新定方」을 지을 당시에는 미음으로써 그 쇠진하려는 기력을 돌구는 방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4) 六味地黃湯의 변천과정

1) 처방구성

	정전	경험방	초고
숙지황	4	4	4
산약	2		
산수유	2	2	3
구기자			3
백복령	1.5	1.5	2
택사	1.5	1.5	2
목단피	1.5	1.5	1

<단위 錢>

2) 처방 비교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 방」<sup>2)</sup>에서 보면 六味地黃湯 처방 중 山藥은 肺藥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太陰人 藥이므로 빼야 한다는 말이다. 『草藴』에서는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 처방에서 枸杞子 3돈을 추가하면서 山茱萸도 역시 3돈으로 올리고 茯苓 澤瀉의 용량을 2돈으로 올리고 牡丹皮의 양은 1돈으로 줄였다.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 방」의 六味地黃湯과 『草藴』의 六味地黃湯의 가장 큰 차이는 枸杞子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草藴』의 六味地黃湯이 內傷 虛勞 虛損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볼 때 枸杞子が 추가된 이유는 補肝腎하면서 益精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방의 구성면에서 볼 때 『草藴』의 六味地黃湯이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의 六味地黃湯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보아 『草藴』의 六味地黃湯이 더 후기에 만들어진 처방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sup>2)</sup>의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 조문에 나오는 六味地黃湯은 草藴의 六味地黃湯이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5) 肥兒丸의 변천과정

1) 처방구성

	의감	경험방	초고
호황련	5	5	5
천황련			10
사군자육	4.5	4.5	5
인삼	3.5		
황련	3.5	3.5	
신곡	3.5	3.5	
맥아	3.5	3.5	5
산사육	3.5		
백복령	3	3	5
백출	3		
자감초	3		
노회하	2.5	2.5	2.5

<단위 錢>

2) 처방 비교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 방」과 『草藴』의 두 처방을 비교하면 『草藴』의 처방에는 神麴이 빠져 있다. 그리고 川黃蓮을 1냥으로 올리고 使君子 麥芽 白茯苓도 5돈으로 올렸다.

神麴은 『草藴』의 저술 당시에는 다른 체질 약으로 보고 뺀 것으로 보인다. 『東武遺稿』<sup>6)</sup>에 보더라도 神麴은 脾藥으로 되어 있어 少陰人 藥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sup>3)</sup>에서는 ‘이 처방에서 마땅히 人蔘 白朮 山查肉 甘草를 빼야 할 것이며 使君子 한 가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약의 성질을 절실히 알지 못하므로 경솔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使君子는 잘 모르지만 神麴은 少陽人 藥임을 말하고 있다.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의 모든 처방에서 少陽人 약재가 아닌 약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元明2대 의가저술 중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방」의 모든 처방의 약물가감이 「新定方」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東醫壽世保元』 저술 당시에는 神麴을 少陽人 藥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6) 白虎湯의 변천과정

1) 처방구성

	상한론	초고1 <sup>a)</sup>	초고2 <sup>b)</sup>
생지황	5		4
석고		4	4
지모	2	2	2
갱미	반홉	소량	
감초	0.7		

<단위 錢>

- a) 초고1은 초고에 나오는 첫 번째 백호탕을 말한다.  
b) 초고2는 초고에 나오는 두 번째 백호탕을 말한다.

## 2) 처방비교

『草藁』의 첫 번째 白虎湯 처방을 보면 『傷寒論』의 白虎湯에서 少陰人 약재인 甘草가 빠져 있으나 똑같이 少陰人 약재인 粳米는 빠지지 않았다. 이 처방은 상당히 불완전한 처방이며 『草藁』의 두 번째 白虎湯에 비해 보다 이전에 사용한 처방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비해 두 번째 白虎湯 처방은 甘草나 粳米를 모두 빼고 生地黃을 石膏와 동량으로 가하였다. 치료도 熱煩發狂과 譫語症으로 유사하다. 『草藁』의 두 번째 白虎湯은 첫 번째 白虎湯을 少陽人 약물만을 사용하여 보다 발전시킨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草藁』에서는 『傷寒論』의 처방을 少陽人 약물만으로 하여 다시 바꾸었고 이렇게 바뀐 처방은 「新定方」에 가서는 地黃白虎湯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地黃白虎湯으로 바뀌면서 石膏의 양을 올리고 防風과 獨活을 추가하였다. 『東醫壽世保元』<sup>3)</sup>에서 李濟馬는 ‘少陽人의 속한 열한 병에는 地黃白虎湯이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말하였고 또 ‘옛 처방인 白虎湯이 새 처방인 地黃白虎湯의 완전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地黃白虎湯의 少陽人의 裏熱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白虎湯의 石膏 生地黃 知母에서 石膏의 양을 올려서 강력하게 裏熱을 맑히도록 하였으며 『傷寒論』의 白虎湯에 들어 있는 甘草와 粳米를 대신 大清胸膈散熱하는 防風과 大補膀胱津陰하는 獨活을 가미하여 少陽人 裏熱病에 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을 치료하면서 石膏 生地黃 知母의 清裏熱하는 약력을 돕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草藁』의 白虎湯은 張仲景의 白虎湯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발전시킨 것이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 결국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러

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地黃白虎湯을 만들게 되었다고 본다.

## (7) 五苓散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상한론	초고
택사	2.5	3
적복령	1.5	2
저령	1.5	2
백출	1.5	
육계	0.5	
합석		1
시호		1

<단위 錢>

### 2) 처방 비교

『草藁』의 五苓散은 『傷寒論』의 五苓散에서 少陰人 약인 白朮과 肉桂를 빼고 滑石과 柴胡를 1돈씩 가했으며 기타 약제의 용량을 약간씩 올렸다. 『草藁』의 五苓散은 熱이 방광에 맺힌 증상과 暑熱을 풀기 위해 利水작용과 清暑熱작용이 있는 滑石<sup>4)</sup>과 和解退熱 작용이 있는 柴胡<sup>4)</sup>를 가미한 것이다.

## (8) 陷胸湯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상한론 소합흉탕	상한론 대합흉탕	초고
반하제	5		
황련	2.5		3
과루	큰 것 1/4		
대황		3	
망초		2	2
감수말		0.5	1

<단위 錢>

### 2) 처방비교

『草藁』의 陷胸湯은 『傷寒論』 小陷胸湯의 黃連과 大陷胸湯의 芒硝 甘遂末로 구성되어 있다. 즉 『草藁』의 陷胸湯은 『傷寒論』의 小陷胸湯과 大陷胸湯을 합쳐 놓은 처방이다.

五苓散과 陷胸湯은 『草藁』의 당시에는 『傷寒論』의 처방을 가감하여 사용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을 보면 비슷한 처방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처방들은 전혀 다른 명칭의 처방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타 명칭으로 변화된 처방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3. 太陰人 처방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1) 乾栗椶根皮湯의 변천과정

##### 1) 처방구성

	초고	신정방
건울		10
저근백피	5	3, 4, 5
길경	3	

<단위 錢>

##### 2) 처방비교

두 처방은 처방명이 乾栗椶根白皮湯과 乾栗椶根皮湯으로 약간 다르다. 『草藁』의 처방은 乾栗椶根白皮湯이지만 椶根白皮는 들어 있으나 乾栗은 들어 있지 않다. 두 처방의 효능이 이질을 치료하는 것으로 같은 걸 볼 때 乾栗이 빠진 것 같다.

太陰人의 처방 중 『草藁』와 『東醫壽世保元』에서 중복되는 처방은 乾栗椶根皮湯 한가지에 불과하며 그 이름 또한 乾栗椶根白皮湯과 乾栗椶根皮湯으로 약간 다르고 처방 내용 또한 다르다. 그 외의 모든 『草藁』의 처방이 『東醫壽世保元』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東醫壽世保元』의 원론<sup>3)</sup>에 보면 ‘太陰人의 병증과 약리는 張仲景이 대략 초보적인 것을 알았으나 송나라 원나라 및 명나라의 모든 의학자들은 절반 가까이 상세히 발명하였다’라고 하여 太陰人의 병증과 약리에 있어서 나머지 절반은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李濟馬는 이 太陰人 병증과 약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 『草藁』와 『東醫壽世保元』의 처방에 있어서 그 처방 내용이 바뀌고 처방명 또한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4. 太陽人 처방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太陽人의 처방은 중복되는 처방이 없다.

『草藁』<sup>1)</sup>에 ‘논하여 말하기를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少陽人 중에는 太陽人의 수가 원래 희소하여 그

병증과 처방을 옛날의 처방에서 볼 때 역시 드물다.’라고 하였으며 또 ‘내가 太陽人의 장부구조를 타고난 이래로 비록 평생토록 경험했으나 마침내는 옛 사람이 오랜 경험으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3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사용하던 질병과 약을 능숙하게 찾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무릇 약의 경험이 많지 못한 자는 질병을 치료한 경험도 넓지 못하다’라고 하였고 『東醫壽世保元』<sup>3)</sup>에서는 ‘경험 처방이 방대하지 못한 것은 경험한 병이 많지 못한 까닭이다. 太陽人 수는 예로부터 희소하다. 그러므로 옛날 방서 중에 기재된 증과 약도 역시 희소한 것이다. 지금 이 五加皮壯骨湯과 獼猴藤植腸湯 처방이 변변치 않고 비록 간단한 것 같으나 만약 太陽人의 병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 처방을 가지고서 자세히 그 이치를 연구하고 또 변통하여서 방법을 강구하면 어찌 좋은 약이 없다고 근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草藁』의 太陽人 처방도 乾柿湯과 獼猴桃湯 두 가지에 불과하고 『東醫壽世保元』의 新定方의 처방도 五加皮壯骨湯과 獼猴藤植腸湯 두 가지에 불과하다. 李濟馬는 『草藁』에서 太陽人의 질병과 약을 능숙하게 찾기가 힘들다 하였고 『東醫壽世保元』에서 역시 비록 두 가지 약으로 변통할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경험이 많지 못함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이는 李濟馬가 太陽人의 처방에 있어서는 종년토록 큰 변화나 발전이 부족했다고 본다.

## IV. 結 論

1. 『草藁』의 처방들의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학의 內傷과 外感의 病因病機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고 『東醫壽世保元』의 처방들의 이론적 근거는 정립된 사상의학적 表裏病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처방의 변화는 李濟馬의 醫學觀 자체가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內傷 外感의 病因病機에서 表裏病의 체제로 점차 발전하여 완성되어 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2. 『草藁』의 처방들에서도 체질별 약물의 개괄적 분류가 있기는 하나 수치에 따라서 타 체질에도 약물을 혼용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의 처방들은 1약물 1체질의 원칙이 세워져 약물의 혼용이 없어

졌다.

3. 『草藁』의 일부 처방은 『東醫壽世保元』으로 가면서 비슷한 명칭의 처방을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었다. 香蘇散은 芎歸香蘇散으로 敗毒散은 荊防敗毒散으로 白虎湯은 地黃白虎湯으로 바뀌었다.
4. 太陰人의 처방은 『草藁』와 『東醫壽世保元』을 비교해 보았을 때 同名의 처방이 거의 없다. 이는 『草藁』에서 『東醫壽世保元』으로 발전하면서 李濟馬가 太陰人에 대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다. 그러므로 太陰人 처방의 완성이 비교적 후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草藁』와 『東醫壽世保元』의 同名 처방을 위주로 비교분석 하였으나 기타 처방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表裏病證 이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甲午本 처방과의 비교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甲午本의 板本에 대

한 문헌적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여 인용하기 어렵다. 향후 甲午本의 板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李濟馬의 방제의 변천 및 醫學觀의 변천이 보다 명확해지리라고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초고, 도서출판 정담, 1999, pp.70, 72, 86~89, 93, 94, 98~101, 112
2. 李濟馬,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73, pp.149, 150, 222, 230, 235, 295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p.67, 124, 159, 160, 163, 194, 195, 222, 230, 233, 293
4. 신민교, 원색임상본초학, 영림출판사, 1986, pp. 172, 249, 333, 354, 355, 393, 394, 413~415, 519, 538, 539, 627, 628
5. 허준,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1999, pp. 1916, 1975
6. 李濟馬, 동무유고, 반룡출판, 1999, pp.1, 4